

니카라과 국별 리포트

2015. 6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 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130천 km ²	G D P	117억 달러 (2014년)
인구	6.2백만 명 (2014년)	1인당 GDP	1,881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Gold Cordoba(C)
대외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26.0 (2014년)

□ 니카라과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중앙아메리카 연방에 가입했으나, 1838년 독립국가를 선언함. 1980년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했으나, 1994년 종결됨.

- 당시 과도한 국방비 지출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다음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최빈국에 속함.

□ 농업이 GDP의 15%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 국가로 주요 수출품은 커피, 육류, 금, 설탕 등이며, 주요 수입 품목은 소비재, 기계류, 석유 관련 제품임.

□ 니카라과는 미국-중미-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(DR-CAFTA) 가입, 멕시코, 칠레, 대만 등과 단일 FTA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경제성장률	3.2	6.2	5.0	4.4	4.5
재정수지/GDP	0.1	0.1	0.1	-0.6	-1.1
소비자물가상승률	5.5	8.1	7.2	7.1	6.0

자료: IMF.

□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기록

- 니카라과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, 높은 미국 의존도(총 수출의 53.7%)로 작황조건, 미국의 정책변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음.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2011년, 2012년에는 각각 6.2%, 5.0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
- 2013년에는 정부지출, 민간소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커피 작황 부진, 금 가격 하락에 따른 광업 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.4%로 둔화되었고, 2014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.5%의 성장을 기록함.
- 미국 직물수출에 대한 한시적 무역특혜(Temporary Preference Levels: TPLs)¹⁾가 2014년 12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니카라과 섬유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임.

□ 베네수엘라 양허성 차관 지원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

- 니카라과는 IMF 자금지원 조건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세대상 축소, 세금징수 강화 등을 시행하여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0.1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2012년 12월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노력,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

1) 한시적 무역특혜(TPLs): 최대 100만 평방제곱미터의 직물수출에 대해 원산지 규정 적용 면제하는 CAFTA 조항

적자 비중은 0.6%를 기록함.

- 2014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, 정부 예산의 자금으로 활용하던 베네수엘라 양허성 차관 감소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.1%까지 확대됨.

□ 정부의 전기 요율 인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6.0%로 하락

- 니카라과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,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2년 7.2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, 2013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- 2014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정부의 전기 요율 인하로 전년대비 하락한 6.0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자연재해 등으로 인프라시설 미비

- 니카라과는 환태평양대에 위치하여 5도 이상의 강한 지진,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함. 또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함.
 - 낮은 도로 포장률, 항구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용이 높고 전력보급률이 75.8%(2013년 기준)로 중미 평균 89.6%에도 미달하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취약함.
 - 2014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(Logistic Performance Index)에서 니카라과는 160개국 중 95위이며, 특히 물류 인프라는 130위로 하위권임.

□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

- 니카라과는 전체 원유 수입액의 90%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장가로 수입하고, Petrocaribe 협정에 따라 수입결제 대금의 50%를 양허성 차관 형태로 수취하여 사회복지 성격의 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고 있음.

- 베네수엘라 경제 불황 심화로 Petrocaribe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, 이는 향후 니카라과 원유 수급 및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다만,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, 2016년 완공예정인 253MW 규모의 투마린(Tumarin) 수력발전소는 전체 전력 수요 25%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중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면적 및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

- 니카라과의 국토면적은 130천 km²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, 금, 은, 구리, 납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.
- 또한 커피, 사탕수수, 면화 등 농산물과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업 및 축산업이 발달함.

□ 열대성 기후, 양호한 치안수준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

- 니카라과는 열대성 기후, 여타 중미국가 대비 양호한 치안수준, 태평양 주변 넓은 해안지대 등의 특성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.
- 세계관광기구(UNWTO)에 의하면 니카라과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.8%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 123만 명을 기록했으며, 이는 중미 전체 관광객의 13.4% 수준임.

□ 니카라과 운하 건설 추진 가속화

- 2012년 9월 니카라과 정부는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(HKND)*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, 2014년 12월 착공하였음.

*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베이징신웨이 텔레콤의 계열회사

- 동 운하는 태평양 연안 브리토에서 시작해 니카라과 호수를 관통하여 대서양 카리브해 연안 푼타 고르다까지 총 278km에 달하고 폭 230~520m, 수심 27m로 계획되어 있어, 완공될 경우 폭 55m, 수심 18.3m로 확장

예정인 파나마 운하에 비해 대형선박의 통과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.

- HKND는 5년의 건설기간 동안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, 운하 완공 후 50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, 대규모 공사에 따라 고용창출 및 내수에 상당한 낙수효과가 기대되고, 완공에 따라 파나마와 함께 중미의 해상 물류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2015년 6월 환경영향보고서가 “실현가능”으로 발표되었으나,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, HKND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수익모델 등 또한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.

다. 정책성과

□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증가

- 니카라과는 외국인투자장려법을 통해 통화 태환성 보장, 국외 거주자의 재산권 보호, 세제혜택 부여 등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2015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(Doing Business)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법적분쟁해결(70위), 수출입절차(74위), 자금조달(89위)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.
- 2013년 대 니카라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인건비 등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유입으로 전년 대비 5.5% 확대된 8.5억 달러(GDP의 7.5%)를 기록함.

□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치안수준 점진적 개선

- 니카라과의 치안 수준은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치안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.
- 2014-15년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, 니카라과는 조직화된 범죄(109위→ 60위), 범죄로 인한 사업비용(100위→66위), 테러로 인한 사업비용(121위→79위) 등 범죄관련 지표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경상수지	-780	-1,155	-1,113	-1,200	-838
경상수지 / GDP	-8.9	-11.8	-10.6	-11.1	-7.2
상품수지	-1,925	-2,426	-2,447	-2,510	-2,402
수출	2,425	3,036	3,491	3,292	3,622
수입	4,350	5,463	5,938	5,802	6,024
외환보유액	1,638	1,716	1,724	1,846	2,104
총외채잔액	6,378	7,870	8,846	9,637	10,458
총외채잔액 / GDP	96.8	81.7	84.2	85.5	87.5
D.S.R.	12.2	12.7	9.9	10.7	11.5

자료: IMF, OECD.

□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축소

- 니카라과 경제는 커피, 사탕수수, 직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해외근로자 송금유입으로 인한 경상이전 수지 흑자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함.
- 2013년에는 중미 지역에 발발한 커피녹병(coffee leaf rust)*에 따른 커피수출 부진으로 수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소폭 확대됨.
 - * 곰팡이균에 의해 커피 잎이 시들어버리는 현상으로, 니카라과의 경우 2013년 커피 재배 면적의 37%가 녹병균에 감염됨.
- 2014년에는 커피 및 제조품 수출 성장세 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소폭 축소 및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이전수지 흑자(14억 달러)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7.2%까지 축소되었음.

□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어 21억 달러 기록

- 2013년에는 해외 원조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1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, 2014년에는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성장, 외환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2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.
- 2013년 9월 중미경제통합은행(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, CABI)은 2009년 이후 4번째로 니카라과 앞 2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제도(contingent credit line)를 갱신함.

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1. 정치 동향

□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등으로 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

- 집권당인 좌파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(FSLN)은 총 92석 중 63석을 차지하고 있어 헌법 개정, 내각 구성 등 60%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의제를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.
- 2014년 1월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, 최저 득표율(35%)조건 철폐 등 헌법개혁안 통과로 다니엘 오르떼가(Ortega) 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됨.

2. 사회 동향

□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빈곤율이 높으며, 지역간 빈곤율 격차도 큰 편

- 니카라과는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최빈국임. 또한, 하루 1달러 미만 생계해결 가구는 42.5%로 중남미 평균 빈곤율 27% 감안시 니카라과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임.
- 수도인 마나구아에도 극심한 빈곤 지역이 존재하나,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63.3%로 니카라과 전체 빈곤율을 크게 상회하며 도시 빈곤율 26.8%와는 큰 격차를 보임.

3. 국제 관계

□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택하고 있으며, DR-CAFTA 통해 주변국 관계 강화

-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적,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미국의 원조 및 FDI 등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 미국, EU 등 서방 국가에 대해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.
- 2011~13년간 니카라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는 17억 달러 (2011년 7억, 2012년 5억, 2013년 5억)이며, 미주개발은행(IDB), 국제개발 협회(IDA), EU, 미국 등이 주요 공여국임.

- 다만, 2008년 지방선거 부정 논란 이후 미국 및 유럽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잠정 중단 등 외교적 마찰이 있었으나, 베네수엘라의 차관 및 원유 제공이 이를 상당부분 상쇄하였음.
- 또한, 미국-중미-도미니카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DR-CAFTA 가입, 멕시코, 칠레, 대만 등과 단일 FTA 체결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.

□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 등 일부 인접국과 영토 분쟁 존재

- 2012년 11월 중재 판결을 통해 콜롬비아와의 해양 경계선 분쟁에서 니카라과가 9만 평방 킬로미터의 카리브해 지역을 영해로 편입하면서 콜롬비아와 마찰을 빚고 있음.
- 코스타리카와는 산주안강(San Juan)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, 향후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7등급 (2014. 10)	7등급 (2013. 10)
Moody's	B3 (2013. 4)	B3 (2010. 5)

* S&P 및 Fitch는 니카라과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음.

- OECD는 니카라과의 과도한 외채규모 및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한 지난 1998년부터 최하위인 7등급을 부여하고 있음.
- Moody's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,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자금의존도, 취약한 재정수입 기반 등으로 니카라과의 국가신용등급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B3(Stable)를 부여하고 있음.

2. 외채상환태도

□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과 연체 존재

- 니카라과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(1991년, 1995년, 1998년, 1999년, 2002년, 2004년)으로 2004년 고채무빈곤국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: HIPC)에서 졸업함.
- 2015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1.4억 달러(단기 0.62억 달러, 중장기 0.74억 달러)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0.1백만 달러로 전체의 0.07%에 불과함.
- 니카라과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014년 기준 총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이 각각 11.2%, 11.5%로 낮으나,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87.5%로 확대됨. 외환 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.8개월 수준임.

□ 주요 ECA의 지원 태도('14년 10월 기준)

- 미국 EXIM : 중단기 제한적 인수 가능
- 영국 ECGD : 제 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, 제한적 중기 인수
- 독일 Hermes 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4> 한·니카라과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186	188	182	편직물, 자동차, 의류, 기타 섬유제품
수 입	42	24	22	합금철 선철 및 고철, 건전지 및 축전지, 동제품
교역규모	228	212	204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국교 수립: 1962년 1월 26일(북한과는 1979년 8월 21일 수교)

□ 주요 협정: 문화협정(1968년), 사증면제협정(1995년), 투자보장협정(2000년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05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니카라과의 교역규모는 2.5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4년에는 2억 달러까지 규모가 축소됨.
 - 특히, 기존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커피 등 기호식품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87.1%, 2014년에는 78.2% 감소하였음.
- 한국 기업의 대 니카라과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3월 말 기준 총 21건, 53백만 달러(누계기준)를 기록함.
 - 총 투자금액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(투자금액 52백만 달러)가 96.1%를 차지하였으며 농업, 임업 및 어업 부문에 대한 투자(투자금액 2백만 달러)가 3.8%를 차지함.

V. 종합 의견

-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.5%를 기록하였고,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및 베네수엘라 차관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.1%까지 확대되었음.
- 니카라과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7.2%로 축소됨.
- 2014년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위협 우려가 존재하나, 여전히 높은 현 정권의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- 니카라과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외채 중 단기 외채 비중이 11.2%로 낮은 수준이나, 높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, 월평균 수입액 대비 낮은 외환보유액 규모 등은 우려스러움.

조사역 조현수 (☎02-6255-5712)

E-mail: hsc@koreaexim.go.kr